

골프장 농약 사용량 13.1% 증가

환경부, 2003년 179개소에 225톤 투입 ... 고독성 <지오릭스> 검출

2003년 한해 동안 골프장 잔디 등에 사용된 농약이 2002년보다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토양 및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환경부가 국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2003년 전국에 등록된 179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25톤으로 전년대비 199톤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단위면적(ha)당 농약 사용량도 12.2kg으로 2002년 11.7kg보다 0.5kg(4.3%) 증가했다.

국내 농약 사용량은 매년 골프장수에 비례해 증가해 왔으나 2003년에 전년대비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하절기의 잦은 강우로 병충해가 증가하면서 농약 살포 횟수도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 품목수도 2002년 128개에서 2003년에는 136개로 8개 품목이 증가했다.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골프장은 단위면적(ha)당 54.12kg을 사용한 경주신라골프장(경주)이며, 유성(대전) 50.39kg, 레이크사이드(용인) 47.58kg, 백암비스타(이천) 43.77kg, 부산(부산) 33.56kg 순으로 전국 골프장의 평균 사용량에 비해 4.4-2.8배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의 토양이나 잔디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된 곳은 95개소로 2002년 56개소에 비해 39곳이 증가했다. 특히, 2개 골프장에서는 나방, 굽벥이 구제용으로 쓰이는 지오릭스(유)가 검출됐는데, 지오릭스(유)는 유효성분이 엔도설판인 유기염소계 살충제로 급성독성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된다.

농약 잔류량 비교

구 분		2003	2002	비 고
농약 잔류량	검출 골프장수	95	56	39개 골프장 증가
잔류농약 검출 품목수	합 계	21	12	9개 품목 증가 고독성 농약: 지오릭스(유)
	고독성	1	1	
	일반(저)독성	20	11	
고독성 농약	검출 골프장수	2	3	1개 골프장 감소

환경부는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알프스골프장(강원 고성)과 통도골프장(경남 양산)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사용(사용 전 미승인)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의법조치토록 명령했다.

또 골프장에서의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 사용량 줄이기, 농약안전 사용 기준 준수, 병충해에 강한 잔디 식재 등 환경보전 홍보를 강화하고 맹·고독성 농약을 무단 사용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3/16>